

광주·전남 백년가게·소공인, 세계화 날개 단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광주 62곳·전남 74곳 선정

중기부, 한국관광플랫폼 연계로 해외 점점 확대

매장별 정보·창업이야기·관광 체험 정보 등 게재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을 간직한 소상공인 업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남도하면 떠오르는 대표 맛집과 장인정신을 가진 지속경영인들 역시 세계로 이름을 알리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지역 소상공인 대표 브랜드인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해 연내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과 도소매업체다. 백년소공인은 제



조업중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 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이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각각 오랜 업력과 기술, 전통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맛과 멋을 보유한 브랜드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한 성공 모델로 꼽힌다.

광주에는 동구 21곳, 서구 10곳, 남구 8곳, 북구 9곳, 광산구 14곳으로 총 62곳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최근 선정된 곳으로는 중앙식당 등

곡점, 염주명가, ㈜광신푸드모아, 현대미용학원, 내가본미용실 등 5곳이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 15곳, 순천시 18곳, 광양시 2곳, 강진군 3곳, 고흥군 2곳, 구례군 2곳, 나주시 4곳, 담양군 3곳, 목포시 7곳, 무안군 2곳, 보성군 1곳, 영광군 2곳, 영암군 1곳, 장흥군 2곳, 함평군 2곳, 해남군 4곳, 화순군 4곳 등이 선정된 바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중앙횃집(목포), 태창유통(목포) 등 두 곳이 백년가게, 유민식품(해남), 다도참주(유) 등은 백년소공인에 선정됐다.

현재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의 정보를 담은 공식 홈페이지는 국문 서비스로만 운

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 국문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한편 K콘텐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올해 영문 홈페이지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매장별 정보와 창업 이야기, 관광·체험 정보 등을 고루 담을 예정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통합플랫폼 ‘비짓코리아’(VISITKOREA)뿐 아니라 영문 지도 서비스 등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명소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매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공해 외

국인 관광객과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시행하며 지역 대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전국에 각각 1407곳, 919곳 지정돼 있다. 중기부는 각 매장에 창업이야기 등을 담은 이야기판(스토리보드)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사업 지원에서 우대한다.

중기부는 올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150곳씩 모두 300곳을 새로 지정하는 등 상정 수도 늘릴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소진공, 기업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이용자 편의성 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법인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 마이데이터’를 본격 개시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개인, 기업)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보법 등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시되는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기존 개인 중심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범위

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 서류가 이용 기관에 전송되는 서비스다.

앞서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법인기업은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행정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서비스 처리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연계되는 행정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총 8종이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제네시스가 PGA 투어 토너먼트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스폰서십을 2030년까지 이어간다. 사진 왼쪽부터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 현대차그룹 정익선 회장, 타이거 우즈, PGA 투어 브라이언 롤랩 CEO, 현대차그룹 정재훈 부회장.

정의선·타이거 우즈, 2030년까지 PGA 동행

제네시스, PGA 투어·타이거우즈 재단과 재계약 조인식

22일까지 ‘인비테이셔널’ 진행…세계 정상급 72명 출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프로골프(PGA) 대회 후원·운영을 놓고 또 한번 손잡았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재계약 조인식을 열고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브라이언 롤랩 PGA 투어 최고경영자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운영 주체인 타이거 우즈 재단의 타이거 우즈,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스폰서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정재훈 부회장,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 랜디 파커 북미권역본부장,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이시혁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지난 1926년 창설된 ‘LA 오픈’이 전신으로, 올해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의 프로 데뷔, 타이거 우즈의 첫 PGA 출전 등

골프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장식해 온 유서 깊은 PGA 투어 대회다.

제네시스는 2017년 ‘제네시스 오픈’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이후 2020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로 격상되는 과정을 함께 했으며, 이번 재계약을 통해 타이틀 스폰서십을 이어가게 됐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호스트를 맡고 있는 타이거 우즈는 “제네시스와 함께한 기간은 대회를 발전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물론 타이거 우즈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PGA 투어, 타이거 우즈 선수, 타이거 우즈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후원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00년이란 전통을 이어온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골프가 지녀온 품격과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대회이자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진정성, 존중, 탁월함의 가치를 함께 보여주는 무대”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계기로 파트너들과 함께 대회의 유산을 계승해 나가고, 골프를 넘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앞서 지난해 5월 PGA투어와 2030년까지 첫 공식 자동차 후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제네시스 스크티시 오픈’ 타이틀 스폰서십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등 글로벌 골프 스폰서십을 통한 제네시스 브랜드 인지도를 꾸준히 제고하고 있다.

한편 타이틀 스폰서십 재계약 이후 열리는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 올해로 개장 100주년을 맞은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현지시간 19일 개막해 22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루드비그 오베리를 비롯해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2위 로리 맥길로이, 3위 저스틴 로즈 등 세계 랭킹 상위 20위 선수 중 18명을 포함한 총 72명의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김주형 등 2명이 도전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기술 환경 변화 속 지역 기업 생존법 모색

광주상의, 24일 경제포럼…AI 기술력 등 조명

광주상공회의소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의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선다.

광주상의는 오는 24일 오전 7시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제287차 광주경제포럼 조찬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글로벌 기술 동향과 산업 변화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SK mySUNI 김지현 부사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 주제는 ‘CES 2026 동향과 AI가 가져올 산업 변화 전망’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선 인공지능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

김 부사장은 SK텔레콤 A.PMO 서비스 전략 총괄과 다음 모바일 전략 이사 등을 역임한 디지털 전략 전문가다.

그는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고 AI가 제조·유통·금융 등 전통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AI를 단순한 업무 자동화 수단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촉매로 규정하고 지역 기업이 디지털 전환(DX)을 실질적인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아 경영자의 판단과 속도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의 활력은 경영자들의 지속적인 배움과 혁신에서 비롯된다”며 “CES 2026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 흐름과 AI의 파급력을 깊이 이해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